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농진청 서효원 차장, 강원 양양·강릉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 점검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 및 예비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시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릉으로 이동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 생산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인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 농가는 지능형 농장에서 '유럽형 상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안개분무 시설(에어 포그 시스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등 기술을 지원받아 시설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 차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보급, 첨단온실 에너지절감 신기술 연구에 더욱 속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찾아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조성된 농업기계 전자동 세척장 운영 실적을 살폈다.

강릉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토양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고, 임대 기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전자동 세척장을 운영 중이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문화 확산·산재예방'

한전 전북본부, 산업재해 예방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정책 적극적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 △안전관리 자문 및 지도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식에 앞서, 한전 전북본부는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초청해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을 활용한 현장 체험교육도 추진 중이다.

이번 교육은 전북본부 저연차 직원 239명을 대상으로 5월15일까지 총 11차수에 걸쳐 진행되며, 산업안전, 전기안전, 응급처치 등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연원섭 전북본부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기사업 분야의 안전보건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2025년을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16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회원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신규 회원 가입 △기존 협의회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하고, 농협주유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안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년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회장 김기수 조합장(서군산농협), 부회장 김기육 조합장(선운산농협), 감사 이우광 조합장(북전주농협)이 2025년 전북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에 연임되었다.

김기수 협의회장은 "최근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류 소비량이 감소하고, 주유소간 판매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등 사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농협 주유소의 지역 내 유가안정의 균형추 역할과 정품·정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은 물론 농업인을 위한 영농편의 제공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북농협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농협중앙회와 중기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홈앤쇼핑·하나로마트 등 유통망 활용, 수출지원 협력 추진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열리는 미국 애틀랜타 게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6일 오후 4시(현지 시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국내외 유통망 확대, 수출지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중앙회·홈앤쇼핑과 농협중앙회의 하나로마트 등 유통 채널을 활용해 국내외 판로 확대를 확대하고 △해외박람회 공동 참가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하며 △스마트 농업 및 식품가공 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K-푸드는 최근 10년간 수출이 연평균 8% 성장하며 매년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냉동 김밥과 불닭볶음면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품질 좋은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을 결합, 글로벌 유통망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식품 수출 영토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2024년 조사료사업 부문 축산경제 연도대상 수상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개최된 '2024년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주김제완주축협이 조사료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 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기후 변화와 국제 곡물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사료의 계획적 재배 확대,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자급률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여 지역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은 축협의 지도·경제사업 추진 분위기 조성과 이를 통한 양축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매년 10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사무소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창수 조합장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의 도시 김제처럼, 우리 축협도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조사료 사업을 키워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고창부안축협, 2024년 축산경제 연도대상 안심한우 부문 수상

고창부안축협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개최된 '2024년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안심한우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고창부안축협은 농협안심한우와 연계하여 한우 사육농가는 고급육 생산에 전념하고, 축협은 축산물 판매를 전담하면서,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라인을 구축하였다.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은 축협의 지도·경제사업 추진 분위기 조성과 양축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매년 10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사무소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사중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협안심한우와 상생협력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 교육을 확대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제철 농산물 참두릅 홍보 판매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전북 참두릅을 홍보하기 위하여 17일부터 23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전주유통센터 및 수도권 대형유통센터)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릅은 봄나물 중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고 섬유질과 칼슘, 철분, 비타민 B1, B2, C등 많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영양적으로 우수한 나물이며, 특히 쌉쌀한 맛을 내는 사포닌, 아연, 셀레늄이 풍부해 봄철 약해지기 쉬운 체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농협과 전북자치도는 농업인들이 땀 흘려 생산한 고품질의 전북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 할 수 있도록 매년 수도권 및 대형유통업체 통합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북생생장터,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북 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내수침체 등 소비부진으로 인하여 농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소개하는 판촉전을 지속 실시하여 농산물 수취가를 제고하고 농민 실익을 강화하는 등 한 배를 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경제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